

Knits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이 해 옥 · 이 순 흥*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Origins and the History of Knitting

Hae-Ok Lee · Soon-Hong Lee*

Doctoral Course &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viewing and researching the origins of knitwear, the history of patterned knits.

Although historians know little about the origins of knitting, many believe it was practiced as early as the 4th century, by nomads roaming North Africa. Later, Arab traders adopted the craft, which helped them while away the hours as they traveled across deserts in camel caravans. Its origins lie in the need for close-fitting and elasticated covering for the body, in particular the head, hand and feet. It first developed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and later in Central and particularly Northern Europe.

Early evidence of multicolored knitting is said to date back to the Egyptian Copts of 600-800 A.D. Medieval knitting is developed through the Church and monastery. The increasing demand for knitted products, already observable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and the number of preserved knitted articles increases in excavated materials from Europe. The improvements in technique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the hand knitting industry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The best-known source of production is the guild organization, and their mass production consisted of the carpets, cushion coverings and other small items for furnishing interiors, but mainly of clothing.

The demand for knitted goods was such that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it was mechanised. The knitting frame, invented in 1589 by William Lee, English priest, was the most perfect machine of this period. The mass production of fully-fashioned and seamless garments in the lat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was dangerously competitive to traditionally woven and sewn clothing.

As fashions changed, knitwear has had an almost continuous rise in public favour, and the popularity of sports has encouraged the fashion for flexible, easy-fitting and absorbent garments.

Key Word : 니트, 니트의 역사, 색무늬 니트(knits, the history of knits, multi color patterned knit)

I. 서 론

최근 패션경향의 두드러진 현상은 니트제품에 대한 선호이다. 외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를 넘어서면 직물보다 니트가 의류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와는 반대로 더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요즘 들어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와 스포츠가 대중화됨에 따라 더욱 활동적이고 편안하며 독특하고 고급스러우며 세련된 의복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더욱 급속도로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20년전까지만 해도 편물은 예술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여성들의 전통기술로 여겨져 왔다. 1970년에 들어서 전통적인 패턴들과 디자인들이 재탐구되면서부터 편물은 공예(Craft)로서 새롭게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기회복은 풍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조해냈고 칼라, 텍스처, 디자인 등에서 수많은 새로운 해석을 초래했다. 또한 이것이 패션과 연계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콜렉션에 편성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니트웨어는 스포티 인포멀룩(Sporty Informal Look)에 적합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받았다¹⁾.

본 연구는 나날이 의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니트의 개념과 어원을 알아보고, 니트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색무늬 니트(multi color patterned knit)의 발달과

정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문헌들과 정기 간행물들, 그리고 인터넷에 실려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연구하였다.

II. 니트의 개념

현재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는 니팅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니트·니트웨어·메리야스·편직물·편물·편직·스웨터·저어지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어원은 다음과 같다.

니트는 고대 영어 단어인 크니탄(Cnyttan:to knot)·크노타(Cnota:a knot)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²⁾. 오늘날 우리가 니트웨어의 대명사격으로 여기는 스웨터(sweater)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1880년경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영국신사가 운동선수들이 땀을 빼게 하는 목적으로 입었던 모직 니트 셔츠를 보고, 땀을 빼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스웨터라고 부르게 되었다³⁾.

저어지(jersey)라는 단어는 15세기경에 영국 해협의 저어지 섬에 사는 어부의 아내들이 손으로 짠 니트 셔츠나 튜닉으로부터 그 어원이 생겼고⁴⁾ 그 산지명이 상품명이 되었는데, 현재에는 평뜨기 조직을 의미하며, 상업적으로는 걸옷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든 편성물을 뜻한다.

메리야스란 어원은 포르투칼어의 메디아스(medias)에서 온 것으로 원래는 양말이라는 뜻이다⁵⁾. 일본에서 처음에 양말 제조에 사용된 조직만을 일컬어 메

1) Madeleine Ginsberg,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London: Studio Editions, 1993), p.147.

2) 이미옥, “니트전문 브랜드의 마케팅 연구: 여성복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7), p.9.

3) Georgina O'Har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Thomas & Hudson, 1993), p.236.

4) R. T. Wilcox,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 Batford, 1992), p.180.

5) 남상우, *피복재료학* (서울: 수학사, 1987), p.249.

리야스라고 부른 것이 우리 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넓어져서, 양말 조직뿐만 아니라 내의류 등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III. 니트의 기원

편성풀의 기원은 사람들의 신체에 밀착되어 잘감싸주는 신축성 있는 멀개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편성풀이 언제부터 인류의 의복재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니트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북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 의해서 약 4세기경부터 실용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⁶⁾. 후일, 아랍의 무역상들(카라반)이 이 기술을 배워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며 여행할 때 뜨개질로 부료함을 달랬다고 한다. 이들이 뜨개질을 티벳, 이집트에 전달하였고, 결국에는 지중해의 선원들에게까지 전파하여 그 선원들의 이동루트를 따라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는 AD 711-712에 발생했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인 무어족의 스페인 침공의 결과로 유럽에 소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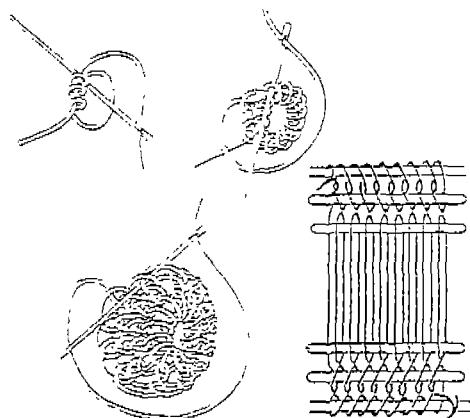
현존하는 최고의 유물로는 AD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프라테스강변에서 발견된 황갈색 모직 편물 조각과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발견된 콥트인의 양말과 소품들이 최고 유물로 알려져 있다.

IV. 니트의 발달과정

1. 고대

(1) 초기의 편성 기법: 스프랭과 루프 교차 뜨개질
편성 기법이 직조 기법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석기시대에서부터 먼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인간들이 팔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피를 조잡하게 잘라서 짐승의 힘줄을 실로 해서 뼈로 만든 바늘로 채매어 자루처럼 만들어 신었을 것이고, 그 후에 나무껍질, 풀대 등을 사용해서 엮어바구니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幡(warp knits)과 위幡(weft knits)의 편성 원리가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⁸⁾.

이렇게 니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들은 종종 너트로 착각되기도 하는데, 스프랭(sprang)과 루프 교차 뜨개질(crossed-loop knitting)이 그런 것들로 염밀히 따져서 요즈음의 뜨개질과는 다르다⁹⁾(그림 1·2). 고대 기법인 스프랭은 비록 바늘 대신 틀(frame)위에서 만들어질지라도 분명히 뜨개질의 전신으로 초기 발달 형태일 것이다. 이것은 틀 양쪽 끝에 날실(warp)을 고정시키고 한 쌍의 실들로 중간부터 상호간에 레이스 짜듯이 엮어 만드는 것이다. 최고의 스프랭 유품은 초기 청동시대인 BC



<그림 1> 스프랭과 루프교차뜨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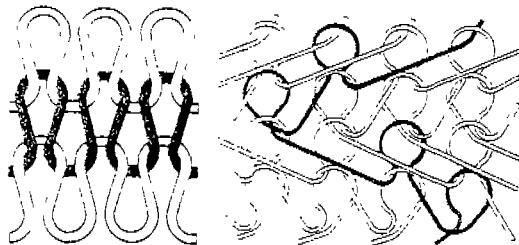
6) Kelly H. Tweeddale, "Patterns of History," *Vogue Knitting* (New York), Fall 1991, p.24.

7) Jennifer Harris,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3), p.46.

8) 김석근, 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1993), p.5.

9) Jennifer Harris, op. cit., p.48.

14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덴마크에서 발굴되었다. 이 기법은 BC 11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페루의 고분 유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림 2> 위편과 경편 조직도

고대 페루 고분의 유물들과 4-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콥토인 무덤에서 발견된 적색 수면 샌들용 양말은 니트와 유사한 조직을 가지나, 표면에 촘촘하게 꼬여진 루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루프 교차 뜨개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3)¹¹⁾. 텍스타일 역사학자인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의 연구(1993)에 따르면 이것은 연속되는 길이의 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뼈로 만든 바늘이나 선인장 가시 한 개를 사용해서 뜨개질보다는 오히려 봉제와 유사하게 작업한 것으로, 한 루프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전의 루프를 꼬아 막아서 굽어지게 차례로 루프를 만드는 것으로 일반 뜨개질보다 더 치밀하고 신축성이 우수하고 매끄럽고 튼튼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인 마드리 진스버그(Madeleine Ginsburg)는 이것을 매듭없이 그물 짜는 기법인 네일 바인딩(nail binding), 한 바늘 뜨개질(single needle knitting)이라는 한 개의 바늘과 다른 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편성하는 기법으로

짜여진 것이라고 하였고, 아직까지도 스칸디나비아에서 여성들의 가내 수작업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¹²⁾. 한 바늘 뜨개질은 일반 뜨개질보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편성법으로 훨씬 매끄럽고 치밀하며 단단한 편성물을 만들었으나, 신축성이 좋은 의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기다란 실을 사용할 수 있는 두 바늘 뜨개질이 한 바늘 뜨개질을 제치고 보편적인 편성 기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한 바늘이 아닌 두 개 이상의 바늘을 가지고 고리를 상호 연결하여 편성하는 교차 뜨개질(crossed knitting)이 뜨개질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편물 역사에서 일반 뜨개질(uncrossed knitting)보다는 교차 뜨개질이 먼저 실용되었다는 것을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추측하고 있다¹³⁾.



<그림 3> 콥토인의 모직양말(5-6세기)
(M.Ginsburg, *The History of Textile*, p.148)

(2) 다색 무늬 니트의 유래

초기의 니트 유물들은 양말, 가방 등 사이즈가 작

10) Ibid., p.49.

11) Burnham, D. K., "Coptic knitting," *Textile History*, vol. III, no. 2(London, n.d.) pp. 116-124, J. Harris, op. cit., p.47에서 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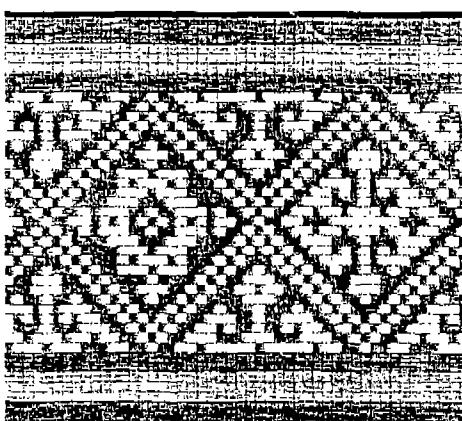
12) Madeleine Ginsburg, op. cit., p.147.

13) Irene Emery, *The Primary Structures of Fabrics*(Washington: The Textile Museum, 1994), p.42.

은 소품들이 대다수로 주로 단색으로 짜여졌다. 다색 무늬 뜨개질(multi color knitting)의 최초 유물은 불행하게도 유실되어 현존하지는 않지만, AD 600 - 800년의 이집트의 콤프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의 이집트인들은 이미 텍스타일 아트의 거장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 주로 양말을 뜨곤 했었다. 또한 아랍인들의 유물잔해에서도 색무늬 편성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쿠션과 같은 커다란 색무늬 니트 조각들이 일부 보존되어 있다.

최초의 색무늬를 가진 유물은 콤프트인들의 색채와 디자인에 대한 지식의 대단함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빨강, 암청색, 청색, 황토색, 흰색, 분홍, 녹색, 갈색 등 여러 색실들을 한 가닥으로 꼬는 기법으로 복잡한 패턴을 생산해 내었다.

<그림 4>는 13-1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인의 양말무늬를 그런 것으로, 이 역사적인 유물은 워싱턴시의 텍스타일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다. 매우 세련된 외양을 가진 이 무늬들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데, 악마의 눈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아예 눈 모양의 문양으로 악마의 눈을 노려보게 하여 악마의 위협한 응시를 막고자하였다.



<그림 4> 이집트인의 양말무늬(13-16세기)
(Vogue Knitting, Fall'91, p.24)

그 당시에는 십자가, S자 모양, 이집트신화의 불

사조인 피닉스 등 수많은 상징적 문양들이 모두 악령을 배척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장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내는 것은 손을 번쩍 들어 위협하는 모습의 패턴이다.

2. 중 세

(1) 성형편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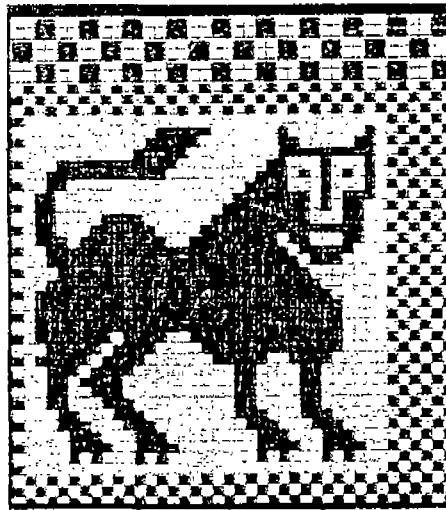
중세의 뜨개질은 수도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최초의 수편 기술의 발달은 두개의 바늘 대신에 서너 개의 바늘로 짜는 기술의 도입이다.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의 의식용 장갑들은 바로 이 기술에 의해 성형되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물들이다.

1272년, 마르코 폴로는 굉장한 치유력을 가졌다 고 소문난 페르시아의 성 바르시아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모직 니트 허리띠를 물렸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이노센트 4세 교황은 1254년 그의 장례식에서 니트로 된 의식 제단용 장갑을 킨 채로 묻혔다고 전해진다.

스페인의 베거스 근처인 휴엘거스의 성 메리 수도원에서 발견된 수녀들이 짠 배색 무늬로 넣고 짠 쿠션커버는 왕족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들로 그들의 장례식 때 성스런 배개로 사용되곤 했다(그림 5). 이것은 가장 좋은 13세기 아라비안 타입 니트의 표본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나 새모양을 변형한 무늬를 가진다.

그림들에 나타난 뜨개질하는 모습들은 매우 성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뜨개질하는 성모(Knitting Madonnas)'라는 1345년에 엠브로지오 로렌제티(Ambrogio Lorenzetti)가 그린 것이 있고,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현재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사의 메리 방문(The Visitation of the Angel to Mary)'이라는 제독의 또 다른 그림으로 베스터 베트램(Master Bertram)이 14세기 말엽에 그렸다. 이 그림은 성모가 4개의 바늘로 봉제선이

없는 원통형의 무늬를 가진 전홍색의 아동용 웨이스트 코트의 목부분을 짜고 있는 것을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중세의 뜨개법이 오늘날의 뜨개질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5> 쿠션 커버 무늬(13세기, 스페인)
(Vogue Knitting, Fall '91, p.26)

(2) 니터 길드(편물업 종사자 조합) 결성

이러한 4-5개의 여러 바늘로 짜는 기술의 도입은 12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파리사람들의 니터 길드와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증거들이 일부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한 추측일 뿐이다. 또 다른 편물기술자 조합으로는 1429년 남부 네덜란드의 Door-nick과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1496년에 결성된 것들이 있었고, 영국의 카페트 기술자들과 양말업자들의 조합들도 이미 14세기에 결성되었다. 중세 초기에는 헤드 드레스들이 주요한 길드의 생산 종목들이었다. 1268년 파리에서는 장인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보닛(bonnet)에서 따온 보니티에로(bonnetier)라고 부르기도 했다. 주로 생산된 헤드 드레스는 네 종류로, 턱 아래에서 끈으로 묶어 헬멧

안에 쓰는 후드, 베레모, 챙 달린 모자와 나이트 캡 등이었다.

3. 근 세

(1) 니트산업의 발달

니트 공예가 유행하기 전부터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9살 때 이미 스타킹의 코 줄임에 관한 기록을 후세에 남길 정도로 뜨개질을 즐겼는데. 그녀의 영향으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뜨개질은 귀족들의 취미로 발전되었다.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대항한 역모죄로 1587년 2월에 거행된 메리 여왕의 처형식에 구경나온 많은 귀부인들이 니트웨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⁴⁾.

중세 후기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이태리 지역의 발굴 유물들 중에서 니트 제품이 상당히 증가하여서 주로 머리에 쓰는 것들, 장갑과 스타킹 등 여러 가지가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왔다. 즉, 14-15세기를 지나면서 니트 제품들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날이 발달하는 편성 기술은 16세기초 수편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 당시 니트제품의 출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은 편물 길드조직으로, 집안이나 수도원에서의 생산보다 훨씬 문서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기를 지나면서 발틱해 지역을 제외한 전 유럽에 편물 길드체계가 형성되었다¹⁵⁾.

유럽의 길드에서 생산된 수편물들은 주로 모직물들이었으나, 면이나 실크 또는 린넨사도 취급하였다. 길드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류 제품이 아닌 생산품은 무늬를 넣어 찬 모직 카페트들이었는데, 16세기 후기부터 18세기 말까지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숙련된 장인들이 20가지 이상의 색실을 사용하여 평편으로 찬 후 웨팅과 쉬어링(fulling & shearing)을 거쳐

14) K. Tweeddale, op. cit., p.24.

15) M. Ginsburg, op. cit., p.149.

만드는 것으로 길드의 결작품으로 여겨진다. 카페트들은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알사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남부 독일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는데 현재 29점의 결작품들이 전세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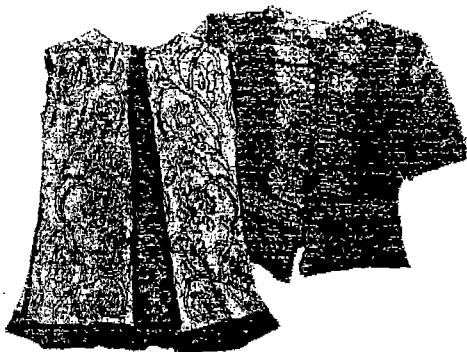
헬팅 또는 홀링 기법은 모직 편성물에서 잘못 짜여진 곳을 수정하려고 문지르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중세 니터 길드에서 뜨거운 물에서 주무른 후, 비누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스타킹, 모자, 셔츠 등을 축융한 후에는 나무틀에 넣어 말리고 나서 다려 형태를 바로잡아 주었다. 홀링의 목적은 코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생산품의 내구성을 높여 약간 유통불통하게 늘어진 투포들을 잘라내어도 무방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16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중류층이나 노동자계층들에게 반드시 모자를 쓰도록 해서, 축융된 모직 모자를 주로 착용하였다.

흔히들 니트의 역사가 곧바로 스타킹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와 다르다. 왜냐하면 편성된 양말(leg covering)의 사용 활번 이전부터 모자(head covering)와 장갑(hand covering)이 이미 편성되어 많이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림 6>은 16세기의 성직자들이 입었던 니트웨어들로 쪽색 웨이스트 코트는 걸뜨기와 안뜨기로 입체적인 무늬를 바탕에 주고 금색실로 자수를 놓았으며, 소매 없는 상의의 자카드 무늬는 매우 대담하고 현대적이다¹⁶⁾. <그림 7>은 유럽의 길드에서 실크에 무늬를 넣고 짠 17세기에 생산된 적색 투늬으로 모스 스티치를 이용해서 바탕에 다마스크 무늬를 낸 다음 금사로 자수장식을 하였다.

배색에 의한 무늬 또는 조직변화에 의한 무늬 짜기는 그 당시 유럽의 실크 편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북동부 지방인 카탈로니아 등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이것이 유행하

였던 이유는 적조기법으로 동일한 의복의 제작하는 것보다 편물 도구나 재료의 비용이 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당시 길드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였던 제품들은 카펫트, 쿠션 커버를 비롯한 실내장식용 소품들도 있지만, 언더 셔츠, 투닉, 웨이스트 코트 등 의류가 주요 생산품이었다.



<그림 6> 성직자의 니트웨어들(16세기)
(D. Newton, *Designing Knitwear*,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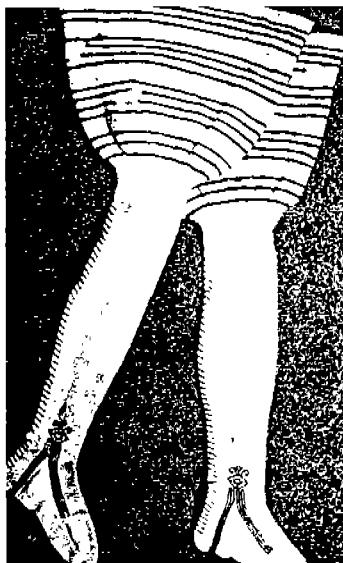


<그림 7> 남성 투늬(17세기중엽, 영국)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 p.146, 153)

17세기 초엽부터는 남성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길드에서 생산된 품목의 대부분이 핸드 메이드 스타킹으로 되었다. 처음에는 모직으로 만든 양말과 스타킹

16) Deborah Newton, *Designing Knitwear* (Newtown, Conn: Taunton Press, 1992), p.5.

들이 대부분이었나, 후일에 값비싸고 훨씬 고급스러운 거젯을 가진 실크 스타킹이 생산되었다. 그 당시 최상품 스타킹은 스페인제였다. <그림 8>은 17세기 중엽에 수편된 모직 부츠 호스(boothose)로 면지 차단과 신발과의 마찰로부터 의복을 보호하는 용도인 넓은 커프스가 인상적이다.



<그림 8> 부츠호즈(17세기중엽, 영국)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 p.146, 153)

이러한 니트 산업의 발전은 16세기 후부터 17세기 초까지의 패션과 관련이 많은데, 그 당시에 여성의 스커트는 약간 짧아졌고,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고 남성들은 짧고 부풀려진 바지를 입었었는데, 이런 의복들로 인해 장식이 많이 된 스타킹의 억서세리 역할은 극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성을 복식에 있어서 스타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형가리,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와 발칸반도 근처 지역들은 이러한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니트산업의 발달이 늦었다. 그러나 발트해 연안국가들에서도 165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퀘어아일식 색무늬를 가진 편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

록 편물 산업의 발달은 늦었을지 몰라도, 다양한 색 무늬를 가진 수편물들은 꽤 일찍부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찰스 디킨즈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보면 주인공 여자가 프랑스 혁명기 때(1789-99년) 단두대 치형을 구경하면서 뜨개질을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는 뜨개질이 귀족들의 고상한 아트에서 대중적인 공예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니트산업의 기계화

16세기 말이 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니트제품의 수요는 니트산업의 기계화를 이루게 만든다. 최초의 편성기계는 영국인 목사 윌리엄 리(William Lee)가 1589년에 발명한 양말을 짜는 수동식 편기로 이 기계는 17세기 동안 서구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손뜨개질보다 5배 이상 속도가 빠른 아주 성능 좋은 기계로 여겨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수 편니트가 기계편보다 훨씬 고급품이고 더 비싼 것으로 대접받았다.

18세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니트산업의 발달이 늦었던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 발칸반도 지역과 북미에도 편기가 도입되면서 외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유럽에서 기계편물에 밀려서 수편산업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당시 기계편 산업의 선도국이었던 영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계들이 고안되었다. 1758년에 제데다 스트러트(Jedediah Strutt)가 고무편기로 발명 특허를 받았고, 1760-98년에는 경편기와 원형편기가 발명되어 좀더 쌀값에 봉제선이 없는 튜브라 양말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9>는 19세기 초에 기계로 편성된 경편조직의 실크 드레스로 레이스 무늬를 가지고 있고 공단 테이프 트리밍이 되어있다.

17) Sheila McGregor, "Knitting Around the World: Baltic Gold," *Vogue Knitting*, Winter Special 1990-91, p.13.



<그림 9> 경편성 드레스(1815~20년, 영국)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 p.157)

드레스 액세서리를 편성되곤 하였는데, 러시아의 벨트와 신축성 있는 새시, 18세기 프랑스의 각반 등의 유물들이 남아있다. 그 외에 여성들의 다양한 종류의 핸드백들과 거울, 가느다란 벨트, 포켓, 애프런 등 19세기의 복식의 특징을 이루는 편성된 액서세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림 10>은 19세기의 구슬로 장식한 핸드백과 손가락부분을 없앤 장갑이다. 농부들의 복식에서도 니트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림 10> 니트 액세서리들(19세기, 영국)
(Designing Knitwear, p.197)

무릎과 허리 보온 덮개, 여성들의 무릎아래서 풀라매는 헐렁한 니커보커 등이 있었다.

(3) 니트의 민속 공예화

편풀이 기계화, 대중화된 후에도, 핸드 니터들은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위치한 군도인 셰틀랜드의 훼어아일(Fair Isle), 아란(Aran), 훼로(Faero)스웨터들처럼 섬이름을 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민속공예로 니트를 발전시켜나갔다.

셰틀랜드 니트웨어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 9세기경 북유럽으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가져온 일반 양들이 부족한 풀 대신 해초들을 먹고 자라면서 독특한 셰틀랜드 양모(wool)를 생산해내는 양으로 변해갔다. 셰틀랜드 양모는 다른 것들보다 부드럽고 가벼우며 따뜻하여 직조보다는 뜨개질에 적합하여 뜨개질이 그들의 주된 민속공예와 경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¹⁸⁾.

다른 섬들보다 조금 먼저 뜨개질을 하기 시작한 훼어아일 니트의 유래에 관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여러 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페인 관련 설로 스페인 함대가 1588년에 셰틀랜드 군도근처에 난파되면서 구조된 그 배의 선원들이 입고 있었던 밝은 색의 십자가 무늬를 넣고 짠 옷을 보고 나서 이들의 편풀에 아마다 크로스 또는 무어족 십자가(Amada cross or Moorish cross)라고 불리는 문양이 첨가되는 등 문양의 종류가 갑자기 풍부해졌다는 것이나, 그들이 스페인 선원들로부터 편성 기법을 전수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전설로 남아있다.

또 다른 설로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설이 있는데, 18세기에 셰틀랜드는 세계 해상 무역루트의 교통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동서양의 외국의 선원들이나 아니면 외국을 다녀온 섬 주민에 의해서

18) "A Brief History of Shetland Knitwear" (Shetland Knitwear Associate, Internet, 1996), p.1.

문양뜨기들이 도입되었다는 설이다¹⁹⁾.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했던 스타킹들의 무역은 17-18세기에 독일 어부들과 교역국의 무역상들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졌었다.

그 외의 유래 설로는 종교적인 심벌이나 사인을 상징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과 자연발생 설로 언젠가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여러 번의 시행을 거치면서 스스로 발전해왔다는 설이 있다.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훼어아일 니트가 오늘날의 니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이것들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자카드가 되었다²⁰⁾. 훼어아일 니트는 하나의 코오스에 두 개의 색만을 사용했고 뒤에 생기는 이음실로 인해 더욱 보온성이 우수하였다.

전통적인 훼어아일 무늬는 OXO 무늬라 불리는 팔각형, 십자가로 구성된 띠 사이에 작고 균형 잡힌 무늬 띠가 삽입되어 있다(그림 11). 또한 셰틀랜드 주민들은 빅토리아 시대(1850-1890)동안 품질이 우수한 레이스 편성기술로 유명하였는데, 셰틀랜드산 가느다랗고 섬세한 모사로 짠 쇼울은 이 시대의 결혼식 때 면사포(wedding shawls)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11> OXO무늬의 훼어아일풀오버(1925년)
(A. Starmore, Book of Fair Isle Knitting, p.25)

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레이스 스타킹을 들겨 신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열렬한 지원 덕에 이들의 레이스 산업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4. 근대 및 현대

(1) 니트웨어의 발달과 유행

패션의 변화되면서, 남성들은 전보다 더 몸에 꽉 맞는 양복들의 속에 입을 수 있는 몸에 밀착되는 속옷이 필요해졌고, 여성과 아동들은 카디건, 니트 스커트, 플오버 스웨터 등을 입기 시작하였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착용감이 좋고 흡습성이 우수하며 신축성이 있는 의복의 유행을 촉진시켜 끊임없이 니트웨어가 대중적인 인기를 높여가고 있었다.

특히, 코코 샤플(Coco Chanel)과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가 스웨터들과 카디건들을 그들의 컬렉션에 도입하였던 1920년에 들어서면서 니트웨어는 갑자기 발전하였다. 즉, 이전까지는 소품이나 속옷으로만 범위가 한정되었던 것이 드디어 오늘날의 니트웨어들과 같이 겉에 입는 옷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2>는 1930년대에 불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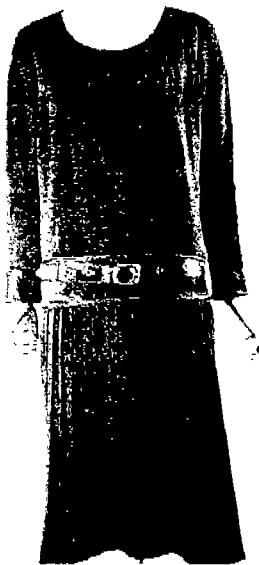
<그림 12> 여성 스웨터(스키아파렐리, 1930년대)
(Designing Knitwear, p.121)

19) Alice Starmore, *Book of Fair Isle Knitting* (Newtown, Conn: Taunton Press, 1988), p.11.

20) Collins, *The Art of Knitting* (London: Glasgow, 1983), p.13. 홍미경, “현대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7), p.15에서 재인용.

서 디자이너인 스키아파렐리가 입체적인 조직에 기하학적인 색 무늬를 디자인한 스웨터로 현재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샤넬은 1924년에 발레의 무대 의상으로 수편된 수영복과 퀘어아일 무늬로 짜여진 골프웨어를 디자인해서 대유행을 시켰다. 그 후 샤넬은 여성복으로 양모 저어지의 사용을 보편화시켰고, 니트웨어를 정장(formal wear)으로 입게 하는데 기여하였다²¹⁾(그림 13).



<그림 13> 니트 왕상블(샤넬, 1926년)
(Haute Couture, p.26)

1920년대에는 여러 색을 혼합하여 짠 퀘어아일 스웨터가 매우 유행하였는데, 이는 웨일즈의 왕자인 에드워드(Edward)가 골프를 할 때, 퀘어아일 스웨터를 즐겨 입으면서 비롯되었다²²⁾(그림 14).

이러한 스웨터의 유행은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33년에는 별명이 악어였던 프랑스의 유명한 테니스 스타 르네 라코스테(René Lacoste)가 은퇴하면서, 깃과 작은 단추가 달려있고, 악어마크가

가슴에 있는 하얀색의 반소매 테니스 셔츠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셔츠는 1930년이래, 지금까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림 14> 웨일즈의 왕자 에드워드(1922년)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203)

1940년-50년대에는 조그만 가내 수공업 규모의 공장에서 몇 대의 수평기를 놓고 스웨터 종류를 생산하였는데,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니트웨어 전문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종류의 니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캐주얼 니트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소니, 베네통, 스테파넬 등 현재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대부분의 니트웨어 브랜드들이 대개 다 이 시기 무렵부터 본격적인 니트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기계의 발달로 더욱 품질이 좋고 다양한 편성물이 대량생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편성물을 소재로 다양한 스타일을 등장시켰다(그림 15·16).

니트가 산업혁명의 기계화로 인해서 대량생산되

21) Julian Robinson, *The Golden Age of Style* (London: Orbis Publishing, 1976), p.52.

22) Georgina O'har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Thomas & Hudson, 1993), p.106.



<그림 15> 을 저어지 야회복과 수영복
(Rudi Gernreich, 1970, 1964)
(Bare Witness, p.18)



<그림 16> 1963년 니트웨어
(이호정, 패션마켓팅 & 패션트랜드 분석, p.31)

기 시작하면서 그 품질이 저하되고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뜨개질이 섬유 예술적인 공예로 리바이벌 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경으로 많은 니트 수공예가(artist craftsman knitter)들에 의해서이다. 손뜨개질은 색상, 원사의 종류, 텍스쳐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자유로운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히 향상

되면서 유니섹스모드가 등장하게 되었고, 블루진의 등장과 스포츠 캐주얼웨어의 대중적인 유행 등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는 스웨터 종류들은 더욱 널리 애용되었다(그림 17).



<그림 17> 유니섹스 모드의 스웨터(Lee, 1983)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225)

1980년대 들어서는 다카다 겐조, 레이 카와쿠보,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진출과 눈부신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패션을 통한 일본 복식문화의 전파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서양의 전통적인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로운 패션문화를 창조해나갔는데, 동서양 문화를 접목한 고정된 틀이 없는 무정형의 비구축적 디자인들과 레이어드 룩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의도에 적합한 드레이프성이 좋은 편성틀들을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에 혼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의식이 태동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90년대 초를 장악한 환경친화적인 에콜로지 열풍에 따라 편성기법과 천연섬유로 만든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니트웨어들은 더욱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패션계 전반에 걸쳐 액티브 스포츠룩이 더욱 유행되면서, 신축성 있고 간편한

신소재의 니트웨어들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2) 편기의 발달

19세기가 되면서, 편기들은 기술혁명을 거쳐 좀더 혁신적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복잡하게 발전되었다. 1864년에는 영국의 윌리엄 쿠튼(William Cotton)에 의해서 플래선편기가 발명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완전히 성형된 봉제선이 없는 니트 의류들의 대량생산은 전통적인 직물로 된 봉제의류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 대전(1939-1945년) 후에는 합성섬유의 출현과 편기 및 전자공업의 발달에 따라 고무편기가 발명되었다²³⁾.

오늘날에는 대형화 자동화된 공장용 기계 생산으로 편물산업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1860년대에 가정용 수편기가 발명되어서 현재의 컴퓨터가 부착된 편기에 이르기까지 많이 애용되고 있다.

각종 편기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개발되어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내장된 전자동 시스템으로 디자인에서 편직까지 모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어서 니트웨어의 조직과 색채 무늬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급스러워졌다. 캐드 디자인시스템과 컴퓨터 편기의 도움으로 환상적인 조직과 색채 무늬를 창조해 내는 대표적인 현대 니트웨어 디자이너로 미소니(Missoni)를 꼽을 수 있다.

5. 한국

(1) 니트웨어의 발달과정

우리 나라에 니트가 처음 소개된 것은 천주교가 전파될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으며, 그 후 손뜨개 제조형식으로 이어졌다. 메리야스제품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조선시대 말기로, 이는 유럽에서 양말이 대중화되었던 때보다 약 3세기나 뒤늦은 것으로 기

독교가 전파된 고종 7년(1870년)경에 선교사들에 의해 양말이 교인의 가정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양말은 기존의 베선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새로운 것이어서 소비기호를 자극하여 급속히 대중화되었다²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양장이 들어온 것이 6.25 사변이후로, 서구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복식의 서구화가 촉진되었다. 1953년에 나일론 직물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본격적으로 스타킹 생산 공장이 설립되었다. 1956년에는 메리야스공업 생산 구조를 근대적 형태로 개편하였으며, 수편률용 텔실의 생산은 1956년부터로, 수입한 양모를 가공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텔실의 생산은 수편물의 활발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1955년에 디자이너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노라노, 쇠경자, 서수연 등 일세대 디자이너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대 후반은 주문 복중심 체재로 외국모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서구의 유행이 우리 복식문화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때부터 편직물인 저어지를 이용한 컷 & 쏘우(cut & sewn) 양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아직 기성복의 개념이 회박하고 주로 양장점을 통한 맞춤복 전성기였으므로, 대부분 집에서 부녀자들이 손수 짜서 만든 편물제품 또는 수편기를 이용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수편 제품들이 의복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저지 니트들을 이용한 컷 & 쏘우 제품들도 양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그림 18).

1970년대가 되면서 제일모직의 '콜텐니트', 화신의 '레나운' 등 몇몇 기성복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재래시장 중심의 기성복에서 본격적인 기업과 브랜드 중심의 기성복 시대가 열렸다. 실용적이고 활동적 생활 중심적인 경향에 따라 신축성이 있고 스포티한 니트제품이 널리 보급되었다.

23) 이순홍, 편물(서울: 수학사, 1997), p.19.

24) 이순홍, 앞의 책, p.20.



<그림 18> 1961년 한국 니트웨어
(패션마켓팅 & 패션트랜드 분석, p.41)

1970년 중반 이후에는 정장류보다는 스포티한 스웨터나 셔츠, 니트류가 애용되면서 니트제품들이 더욱 패션화되어 갔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림 19).



<그림 19> 1977년 한국 니트웨어의 패션화
(패션마켓팅 & 패션트랜드 분석, p.97, 139)

1980년대는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패션이 대두된 시기로 서구패션의 단순한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모드를 정립한 시기이다. 80년대 초 기에는 교복자율화 시행에 따라 쥬니어 패션이 탄생하였으며,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였던 80년대 후반에는 스포츠웨어의 타운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청바지가 모든 연령층에서 외출복, 일상복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스포츠 캐주얼웨어의 브랜드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고학력 커리어 우먼이 증가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캐릭터웨어 브랜드가 붐을 이루었다. 특히 스포티한 감각의 캐주얼웨어가 널리 애용되면서 간편하고 실용적인 환편니트 제품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우 선호하게 되었다(그림 20). 또한, 80년대 후반 바디 콘셔스룩과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면서 더욱 신축성 있는 니트제품들이 애용되었다. 따라서, 캐주얼 업계들은 니트류 생산 비율을 확대하였고, 티셔츠가 스포티한 개성을 창출하는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20> 1987년 한국 환편니트제품
(패션마켓팅 & 패션트랜드 분석, p.97, 139)

1990년대는 이신우, 진태옥, 홍미화, 이영희 등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시기이고,

건강, 활동성, 기능성을 포함한 개성추구,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으로 탈유행(脫流行)의 시대로 멋과 실용성을 갖춘 옷들이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갔다.

1990년대 초반에는 환경친화적인 에콜로지와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춘 에스피코드의 영향으로 더욱 니트류가 강세를 보였으며, 연령중심의 마켓에서 마인드 중심의 고감도 시장이 형성되면서, 고감도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던 환편니트 의류시장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액티브 스포츠 의류가 일상복으로 애용되면서 신축성 있고 활동적인 스펜티스 소재의 니트류가 애용되었다.

(2) 편기의 발달

편기는 1910년경 일제 수동 양말 편기의 도입을 시작으로, 1919년 미국산 자동 양말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²⁵⁾. 1933년 평양에 속옷 뜨기 기계 시설을 갖춘 공장이 설립됨을 계기로, 차츰 전국에 메리야스공장과 양말 공장이 설립되었다. 1945년에는 환편기 양말기계를 갖춘 공장이 설립되었고, 1957년에는 트리코(tricot) 편기와 라셀(raschel) 편기가 도입되어, 경편성물(warp knits)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까지 주로 가내공업형태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니트 산업은 1960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 수출 전략 상품의 하나로 집중 육성되면서 고도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며, 새로운 합성섬유와 혼방 직물들이 개발되면서 소재나 색상이 다양해졌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편기들이 발달하게 되어 전자식 무늬 작성 방식이 실용화되면서 다양한 편직물들을 접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양말 편기의 컴퓨터화

를 비롯하여 스웨터 업계에 컴퓨터가 내장된 획편기들을 설치하게 되는 등, 전체 니트업계의 80% 이상이 기계화를 이루게 된다²⁶⁾.

(3) 현재 한국 니트 업계의 문제점

1950년대까지 주로 가내공업형태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니트 산업은 1960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 수출 전략 상품의 하나로 집중 육성되면서 고도의 성장기를 맞이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니트산업은 시설투자가 낮고 자본규모가 영세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현재 우리 니트 전문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기계도입 등 설비투자가 어렵고 투자를 해도 여성의류에 편중되어서 대중화상품으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나날이 매출이 늘고 있는 수입브랜드들의 시장점식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또한 니트라는 소재에서 전개되는 아이템 자체의 한계성 극복이 어렵고, 봉제기술과 디자인력은 세계시장과 겨루어볼 만하나 가공 기술은 부족한 상황이다

V. 요약 및 결론

편성물의 기원은 사람들의 신체에 밀착되어 잘 감싸주는 신축성 있는 덮개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았다. 단지,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북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 의해서 약 4세기경부터 실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흔히 니트로 착각되기도 할 만큼 니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뜨개질의 전신이자 초기 발달 형태인 고대 기별으로 스포츠와 루프 교차 뜨개질이 있었고, 최고의 스포츠 유품은 초기 청동시대인 BC

25) 노동부, 편물, (서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989), p.2.

26) 이호정, 패션마케팅 & 패션트렌드 분석(1955-1995년)(서울: 교학연구사, 1996), p.132.

14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덴마크에서 발견되었다.

초기의 니트 유물들은 양말, 가방 등 사이즈가 작은 소품들이 대다수로 주로 단색으로 짜여졌고, 다색 무늬 뜨개질의 기원은 AD 600-800년의 이집트의 콜트시대의 양말, 큐션 등에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된 문양들은 모두 악령을 배척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세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뜨개질을 발전시키는 중심역할을 수행하였고, 13세기 무렵에는 니트 발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데, 바로 두개의 바늘대신에 서너 개의 바늘로 짜는 성형 기술의 도입으로, 수녀나 신부들이 손으로 짠 성형된 장갑, 벨트, 큐션, 베개커버 등에서 기하학적인 무늬나 새모양을 변형한 색 배합 무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4-15세기를 지나면서 니트 제품들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 이태리지역의 유물에서 상당히 다양한 니트제품이 발굴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16세기초에는 수면 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편성기술 또한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그 당시 니트제품은 카펫트, 큐션 커버를 비롯한 실내장식용 소품들과 외류로 주로 편물 길드조직에서 생산되었고, 다양하고 정교한 배색에 의한 자카드 무늬 또는 조직변화에 의한 무늬 짜기가 유행하였다. 그 이유는 직조기법으로 동일한 의복의 제작하는 것보다 편물 도구나 재료의 비용이 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세기 초엽부터는 남성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길드에서 생산된 품목의 대부분이 핸드 띠어드 스타킹으로 되었다. 16세기말이 되면서 니트산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최초의 편물기계인 양말을 짜는 수동식 편기를 영국인 목사 윌리엄 리가 1589년에 발명하게된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당시 기계 편물 산업의 선도국이었던 영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계들이 고안되었다.

19세기가 되면서, 편기들은 기술혁명을 거쳐 좀

더 혁신적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복잡하게 발전되어 서, 팔쾌션편기가 발명되었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완전히 성형된 봉제선이 없는 니트 외류들이 대량생산되어 전통적인 직물 외류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는, 샤넬과 스키아파렐리가 스웨터들과 카디건들을 콜렉션에 도입하여 니트웨어를 내의나 소품이 아닌 당당한 한별의 걸웃으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섬유공예가들에 의해서 예술적인 공예로 뜨개질이 리바이벌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내장된 전자동 시스템으로 디자인에서 편직까지 모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수행될 수 있게 되어서, 니트웨어의 조직과 색채 무늬디자인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하며 고급스러워졌다.

이상과 같이 그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 니트웨어는 우수한 신축성으로 활동의 편의성을 물론, 소재의 복합성으로 디자인의 다양성을, 그리고 드레이프성과 성형성에 의한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개성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의상의 유행 조류에 적합하여, 앞으로 외류 산업에 있어서 그 위치가 더욱 더 중요해질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섬유 예술분야에서도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노동부.『편물』. 서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989.
- 김석근.『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1993.
- 남상우.『피복재료학』. 서울: 수학사, 1987.
- “니트산업성장 10년.”『니트산업』, vol. 5,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 이미옥. “니트 전문 브랜드의 마케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7.
- 이준홍.『편물』. 서울: 교학사, 1985.
- 이호정.『패션마케팅 & 패션트랜드 분석(1955-

- 1995년). 서울: 교학연구사, 1996.
-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1996.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 패션마케팅. "Apparel Report: 니트 서브브랜드 전략." 『패션마케팅』, 1996. 4.
 - 홍미경.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흥의대학교, 1987.
 - 한국섬유공학회편. 『섬유제품기술지침서: 편물제 셔츠』.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7
 - "Shetland Knitwear Today." 毛糸だま, no.86, 日本ヴォグ社, 1995. 12.
 - Emery, Irene. The Primary Structures of Fabrics. Washington D.C.: The Textile Museum, 1994.
 - Internet. "A Brief History of Shetland Knit-wear." Shetland Knitwear Associate, 1996. 4.
 - Ginsburg, Madeleine.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 London: Studio Ed., 1991.
 - Harris, Jennifer.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3.
 - Martin, Richard & H. Koda. Haute Couture.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5.
 - Bare Witness.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 McGregor, Sheila. "Knitting Around the World: Baltic Gold." Vogue Knitting, Winter Special 1990-91.
 - Needles, Howard L. Textile Fibers, Dyes, Finishes & Processes. Park Ridge, N.J.: Noyes Publications, 1986.
 - Newton, Deborah. Designing Knitwear. Newtown, Conn.: Taunton Press, 1992.
 - O'Hara, Georgin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Thomas & Hudson, 1993.
 - Ribeiro, Aileen & V.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N.Y.: Costume & Fashion Press, 1997.
 - Robinson, Julian. The Golden Age of Style. London: Orbis Publishing, 1976.
 - Starmore, Alice. Alice Starmore's Book of Fair Isle Knitting. Newtown, Conn.: Taunton Press, 1988.
 - Tortora, Phyllis & K.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N.Y.: Fairchild, 1994.
 - Tweeddale, Kelly H. "Patterns of History." Vogue Knitting, Fall 1991.
 - Wilcox, R. T.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 Batsford, 1992.